

보도시점 2026. 5. 27.(수) 15:00 배포 2026. 5. 27.(수) 14:00

하수처리장, 에너지 자립화로 탄소중립에 이바지

-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, 울산 용연하수처리장 방문
-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강조

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5.27일(수) 「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」 제99차 일정으로,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용연하수처리장 현장을 시찰하고,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하수처리장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.

금번 현장방문은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원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라,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자립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.

< 현장방문 개요 >

- 일자/장소 : '26.5.27(수) / 용연하수처리장*
- * (운영개시일) 1995.08.18. (시설용량) 하수처리용량 250,000m³/일
- 참석자 : (기획처) 사회예산심의관, 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장
(유관기관) 한국환경공단, 울산시 관계자 등

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은 “하수처리장은 부지면적이 넓어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, 슬러지 소화가스(바이오가스)*에 의한 발전, 하수열이용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고”라고 밝히며, “환경 기초시설의 에너지 자립화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에너지 안보 측면과 운영비 절감 등 재정 측면에서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”고 강조했다.

* 하수 찌꺼기(슬러지)를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로 분해할 때 생성되는 가스

환경공단 및 울산시 관계자는 노후 하수처리장 현대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화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면서, 지방자치단체들이 안정적으로 하수처리장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**중장기 정책 방향**과 지속적인 **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**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

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은 “하수처리장 현대화 같은 친환경·고효율 에너지 자립화 사업이 **전국으로 확산**될 수 있도록 내년도 **예산 편성 과정**에서 **관련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**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예산실	책임자	과 장	김의영 (044-214-2570)
	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	담당자	사무관	이윤혁 (kkuljam@korea.kr)

